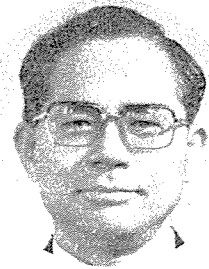


# 理·工系大學 特性學科 指定의 의의와 육성방안



權 肅 一

〈서울대 교수·物理學〉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는 외국에 비하여 짧은 편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 만큼 대학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것은 대학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된다.

그러나 돌이키면 100여년의 대학 역사 가운데 상당한 기간이 日帝下에 있었고 또 6.25動亂과 사회적 불안 여건이 대학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우리가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모방산업과 가공산업으로 경제를 일으킬 때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유능한 인력이 잠재해 있었던 것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발전은 경제성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妙法이나 지름길이 없고 우수한 고급연구인력을 꾸준히 양성하여 그들이 훌륭한 업적과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을 때 이룩될 수 있어 그 밑거름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늦으나마 문교부가 대학발전의 획기적, 轉期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대학으로 하여금 다른 분야에 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분야를 선택케하여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께이나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문교부는 각 대학이 특성학과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각 대학형편에 따라 어느 특성학과가 그 대학의 급진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과, 혹은 대학나름의 독자적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 학과의 발전이 그 대학으로 하여금 다른 대학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할 수 있어 그 학과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 학과,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대학의 특정분야가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과등을 참고하여 그 선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각 대학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97개 대학중 83개 대학에서 1개 학과씩 83개 특성학과를 선정하여 문교부에 신청하고 이

들이 지난 9월에 특성학과로 확정되었다. 이중 53개 학과가 自然科學系學科를 선택한 것은 고도화되어 나가는 산업구조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연구가 요구되는 기초학과 내지 첨단공학계를 선호하는 흔적이 역역히 보이고 있다.

이 특성학과가 확정된 후 문교부에서는 우선 금년도에 10개 대학에서 지정한 첨단기술계 학과에 1억 3천 1백만원을 私立大學 工科系 内部 시설 보조비로 지급하였으며 또 6개 대학에는 3,240 만원을 연구비로(각 대학 540만원씩)보조한바 있다.

그리고 특성학과 확정시 문교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이들 학과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 특별지급, 일부 시설의 국고보조, 또 우수 학생유치를 위한 장학금의 특별 배정 및 해당학과 교수들의 해외연수기회 우선 부여등 각종 혜택을 주어 집중투자 내지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은 특성학과에 대한 집중투자 효과를 평가하는 시기상조이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효과는 클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일시적인 전시효과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시행해 나갈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다.

그러면 왜 하필 한 대학에 한 학과에 그칠 것이며, 현재 지정된 특성학과와 일반학과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후속적 지원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한 대학에 한 학과를 선정하는데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어떤 대학에서 최우수 학과로 육성함에 따라 서로 경쟁하는 학과중에서 한 학과만을 특성학과로 지정받아 모든 특혜를 받게하여 또 다른 우수 학과에는 발전안인 침체를 안겨 준다면 이로인한 대학의 발전 저해요인과 후유증을 어떻게 제거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육성의 여지가 있어 오히려 각별한 배려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과는 소외되어 발전의 기회마저 상실하여 특성학과와의 격차를 더해 간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지 않

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도 모든 학과와 모든 교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는 다시 均配라는 원시적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제한된 재정과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戰略的방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특성학과 지정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특성학과 육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를 확대 운영되도록 하여 대학의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우수대학육성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특성학과 지정의 개선안을 간략히 지적하고 특성학과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성학과를 한 대학에 한 학과로 국한하는 인위적 제한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학과 선정에 대학내 의견을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성학과 선정에 많은 교수가 관심이 없다면 특성학과 발전은 기약할 수 없기때문이다. 즉, 만일 대학내의 의견수렴이 없이 정해질 경우 많은 교수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특성학과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학과를 선정하는 대학, 다른 대학에서 흔히 전공하지 않는 특수분야를 내세워 자기 대학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자기 대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대학, 취약성을 들추어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얻어 육성시키고자 하는 대학, 지역 사회에 특별히 공헌할 수 있어 그 대학을 지역 발전의 주체로 유도할 수 있는 학과를 선정하는 대학 등 다양한 특성학과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문교부에 승인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때 대학은 한개 학과가 결정되지 않고 2개 이상 학과가 결정되면 각 학과가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문교부에 요청하면 된다. 시설이 필요한 학과, 교수의 해외연수가 필요한 학과, 또는 장학금이 우선 급한 학과등 다양한 지원이 그 대학 실정에 맞게 지원되어야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내에서는 특성학과로 신장하기 위하여 선의의 경쟁이 예상되고 이는 곧 대학의 균형적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어 특성학과 지정은 좋은 자극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은 투자면에서 살펴보자. 현재까지는 특성학과를 지정한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그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투자현황만을 놓고 논의해 보자. 우선 연구보조비로 한 대학에 540만원씩의 균등배분은 아직도 이 제도 운영이 성숙치 못함을 예시하고 있다. 즉, 연구 보조비니까 어떤 연구계획에 보조형식이란 입장에서 일부지원이라고 하여 균배하였다 하겠지만 각 대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조금이라도 고려되었다면 균배하기 보다는 오히려 몇몇 대학에 집중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하여 특성학과를 집중육성 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체제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제한된 재원으로 균배하여 실적만을 의식한 연구비 배정이 아니고 단 한건이라도 이 연구비가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특성학과 지원에 대한 몇가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이미 문교부가 제시한 지원방안에 덧붙여 좀 더 적극적 육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특성학과의 독자적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일반 학과와 같은 제도적 제한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그 학과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 대학 당국이나 문교부는 그들의 특수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학사운영에 신축성과 유연성을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이를 점차 특성학과 아닌 일반학과에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둘째**는 교수의 채용문제의 특혜조치 방안이다. 특성학과에서는 공채에 의한 교수채용과 병행하여 특채에 의한 우수교수 유인책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유

능한 세계적인 재외교수나 국내교수의 스카우트를 공채에 의존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교수가 없는 특성학과 발전이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째**는 merit제도의 활용방안이다. 이는 특성학과 내에서도 우수한 업적과 연구결과의 활용성에 따라 교수의 강의부담을 줄여주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모든 교수에게 다 같이 책임시간수 만큼의 강의부담을 주어 merit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욕적인 연구풍토의 토착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merit가 있는 유능한 소장교수들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도 확대하고 연구비의 특별지원도 가능토록 행정적 지원이 마련된다면 학과내뿐 아니라 대학 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학생에 대한 특혜조치 방안이다. 특성학과에는 우수한 학생의 유치가 불가피하므로 장학금의 우선지급은 물론이고 그 학과를 지망하는 대학원 학생에게는 상위 일정비율에 대하여 병역특혜조치까지도 부여하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수한 학생이 없는 특성학과는 형식적인 간판만 있는 학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궁극적으로 대학내 면학분위기 정착화 유도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 믿는다.

**다섯째**는 특성학과 확대방안이다. 우리가 현재 선택한 특성학과는 한 대학 한 학과로 국한되어 있지만 재정적 지원아닌 제도적, 행정적 지원으로도 가능한 새로운 국면이 예상되며 특성학과 의 확장은 국내 대학의 질적 향상에 절대적 활력소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몇몇 학과는 세계적 수준으로 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대학의 발전을 경제성장 못지 않게 피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에 이르렀음을 통감하여 대학인의 각별한 각오와 함께 대학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이 뒤따라 모처럼의 특성학과 지정의 의의를 살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이것이 대학 발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